

113 공정 이용

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익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문화 발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예외 제도
- 비평·보도·교육·연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이용을 침해로 보지 않는 원리

공정 이용 개요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일정한 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원칙입니다.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공정 이용은 그 보호가 과도하게 창작·교육·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균형 장치입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

공정 이용의 여부는 단순히 “비영리 목적이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① 이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교육·연구 등 공익적 이용인지
- ② 저작물의 성격: 창작성이 높은 예술 작품인지, 사실 보도나 공공 정보인지
-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비중: 저작물 전체 중 얼마나 사용했는지
- ④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공정 이용과 AI의 관련성

공정 이용은 최근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인터넷상의 방대한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정 이용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공정 사용의 해석 범위에 따라 AI 학습의 합법성과 산업 발전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의 의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 보호와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면 문화 발전이 위축되지만, 반대로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단순히 저작권의 예외 규정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창작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법적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중요성을 알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 추진 등 공정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